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 40:1-5, 27-31)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위로일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항상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사 40:1-2).

이때 유대 백성들은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요,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호사밧과 요시아,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같은 성군들이 일어나 아름다운 신앙의 개혁을 이뤘지만, 유대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멸망의 과정을 통하여 실로 많은 환란과 책벌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일삼아 징계의 채찍을 들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세워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사 40:2).

우리는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짓누르는 노역의 때를 끝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을 다 사해주실 터인데 우리의 모든 죄, 잘 못한 것, 실수한 것, 후회하는 일, 게으름, 신실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미 용서받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셔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리라”(사 40:31).

전지전능하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God Comforting His People

(Is. 40:1-5, 27-31)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n the act of living, there is a necessity for us, to feel comfort. There is no one who does not need comfort and encouragement. With the lips that were given us by God, we should always use language of blessing, encouragement, and comfort.

“Comfort,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Speak tenderly to Jerusalem, and proclaim to her (Is 40:1-2).

At that time Jewish people lived their lives in a difficult situation. Because they left God’s word and fell into the sin of idol worship. Even though Jehoshaphat and Josiah, and sage kings like Hezekiah appeared and achieved a reformation of wonderful faith, Jewish people disobeyed God’s word again and fell into the sin of idol worship. Finally, in 586 BC, Judah was ruined by Babylonia.

Israel people experienced lots of torment, punishment, and insult through this kind of collapse process. However, God did not leave them alone. Although God held a whip, because they left God’s word and did nothing but worship idol, God made them free, raised them again, and wanted them to be used as a holy tool.

What is real comfort?

“Speak tenderly to Jerusalem, and proclaim to her that her hard service has been completed, that her sin has been paid for, that she has received from the Lord’s hand double for her all sins (Is 40:2).

We can never live our easy life. But God, after all, finished the time of labor that makes our life hard. Moreover, he must forgive our sins, mistakes, regrettable things, laziness, untruthfulness, and the fact that all of these sins that cannot help pressing on our mind, can be forgiven by God, is just God’s comfort.

Therefore, we, now, need no longer to be led by the sins that were already forgiven by God, because the merits of Jesus’ precious blood are as effective as before even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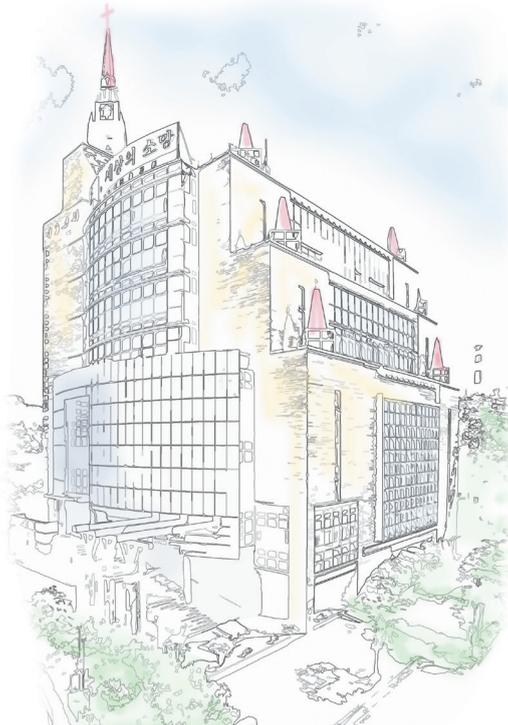
It is God who knows our weakness, wraps and heals up our injury, and suffers our pain just as his own. It is never he who stays far away and looks at us.

If so, how does God comfort us? God’s absolute comfort only comes from the Bible.

My beloved Christians,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Is 40:31).

By looking at almighty God, Father, the creator of the universe, and living your life like eagles which soar on wing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5 사명자대회 은혜중에 마친 『VIP 초대 새생명축제』

자율기도 : 3,369명 참석 / 릴레이 성경읽기 : 15독

지난 23일(금) 오전 11시에 있었던 여성중심 전도 집회, 25일(주) I, II, III 부 예배와 찬양예배 시 진행된 『VIP 초대 새생명축제』가 은혜 중에 마쳤다. 박노철 담임목사의 말씀과 신형원 권사의 찬양, 고요한 성도의 해금연주, LOVE LETTER의 찬양 순서로 진행 되었다.

또한 24시간 자율기도에는 3,369명이 참석하였으며 릴레이 성경읽기는 15독을 진행 중이다.(10월 28일(수)기준)

특히 11월16일(월)~21일(토)까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주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서울강남노회 제57회 정기노회 및 목사안수식

11월3일(화) 오전9시30분 개회 / 목사안수식 오후7시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장제한 목사) 제 57회 정기 노회가 11월 3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 리교회 본당 2층에서 개최된다. 오전 9시부터 등록이 시작되며, 9시 30분 개회예배에 이어 박노철 담임목 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된다. 회무는 오후 5시에 폐회된다. 이어서 오후 7시부터 웨스트민스터홀에서 목사안 수식이 거행된다. 우리교회에서는 정대은 전도사(청 년부 지도)와 김종일 선교사(의정부열방교회 파송)가 목사안수를 받는다.

2016년 섬김위원 봉사지원 신청

오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2016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주 우에는 또 다시 봉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 보 삼지로 제공된 봉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늘 으며, 기존봉사자 중 부서를 옮기기를 원하는 성도와 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이미 봉사하고 내년 새로이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만 제출하면 된다. 있는 부서에서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경

칸타타 " 열렸다 하늘문이 " 출간

칸타타(Cantata) "열렸다 하늘문이" (찬양위원장, 작곡가/ 전 단국대 음대 책이 빛나라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 학장)가 작곡한 작품으로 독창, 중창, 다. 칸타타 "열렸다 하늘문이"는 2001 합창에 Organ 과 Piano반주로 되어 있 년 서울교회의 입당감사 음악제를 위 는 대규모 구성의 악곡이다. 해 작곡된 곡이다. 구매를 원하는 성도는 빛나라 출판 이종윤 원로목사가 작사한 8악장 사(02-2693-1112)로 하기 바란다. 구성의 성시(聖詩)위에 박정선 장로



2016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1월 7일(토) 오전 10시, 501호 : 수험생을 위한 토요 학부모 기도회

11월 12일(목) 오전 8시 30분, 101호 : 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

수험생을 위한 "2016 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토요 대입 수능 당일인 11월 12일(목)에도 수능시간표 학부모 기도회"가 11월 7일 마지막으로 진행 된다. 에 따라 함께 기도하는 "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가 지난 10월 17일 (토)부터 시작 된 "수험생을 위한 토 있을 예정이다. 수험생 자녀들을 둔 성도들의 많은 요학부모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 중이다. 아직 참 참여 바란다. 석 못한 수험생 학부모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사랑부 「제 9회 천사들의 음악회」

11월 15일(주일) 오후 2시 40분, 101호에서



사랑부(지도: 박영준 목사, 부장: 강성은 집사)는 『제 9회 천사들의 음악회』를 11월 16일(주일) 오후 2시 40분, 101호에서 갖는다.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 악기 연주와 찬양을 드리며 전도의 장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90)

(문 190) 거듭난 신자가 타락할 수 있을까요?

(답) 예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10:28)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히6:4-6)라 했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히10:26f.)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후에도 주께 대항하는 배교자의 행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가 정말 중생한 신자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히6:4-6에 기술된 배교자는 가룟 유다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3년간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했으며 성령에 참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함으로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고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위선과 배신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요17:12)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하고 따랐으나 내심으로는 다른 것을 바라고 기대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진정 모셨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완전 복종하는 거듭난 체험이 그에게는 없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히10:26-27의 말씀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의도적으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했습니다.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면 죄를 다시 계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는 히6:4에서 '한 번 빛을 받고'와 비슷한 말씀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고로 신실하고 진실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신자는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지 않게 될 것입니다(히10:29). 그의 거룩한 피를 속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계속)



VIP를 향한 사랑의 섬김은 계속 되어야 한다

사명자대회 본부

기도와 전도의 열기가 불타오르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 속에 사명자대회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과 주일에는 'VIP초대 새생명축제'가 은혜 중에 진행되었다.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 친구, 지인 등을 VIP로 작정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진행된 새생명 축제는 그야말로 은혜의 한마당이었다.

금요일에는 신형원권사의 간증과 찬양에 이어 담임목사님의 명쾌하고 감동적인 복음제시를 받은 수많은 VIP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하였고, 주일 1,2,3부 예배와 저녁찬양예배 시간에도 VIP를 향한

복음의 향연은 계속 되었다.

특히 저녁찬양예배에는 우리교회의 보배인 '러브레터' 중창단이 영혼을 감동시키는 감미로운 찬양을 통해 VIP와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었고, 담임목사님의 핵심을 찌르는 복음제시로 눈물을 흘리며 마음 문을 열고 신앙을 결단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VIP 초대 새생명 축제'는 끝났지만,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VIP를 향한 사랑과 전도와 후속돌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명자대회 기간동안 특별히 더 많은 정성을 VIP를 향해 쏟아야 하고, 매년 계속해서 새로운 VIP들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VIP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전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박영준 목사 (2016 동계 비전트립지도)

2016년 동계 비전트립이 미안마로 결정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전트립을 미안마로 가네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미안마에 아직도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미안마는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신 나라입니다.

시편 44편 22절을 보시면 절박한 시인의 절규가 나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선교지는 매일 영적 전쟁터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4편 2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새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

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선교에 대한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헌신은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입니다.

서울교회는 미안마 양곤 지역 22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미안마에서 올해도 서울교회에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안마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2016년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양곤 지역의 가정교회들을 방문하여, 성경학교, 시설 보수, 가정교회 교사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안마 가정교회와 지도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비전트립 표어는 '미안마를 그리스도의 품으로'이며, 주제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시 44:26)'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상태 집사 (70인 전도대 대장)

사랑의 하나님
바쁘고 힘겹게 달려가는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주 안의 성도들과 정을 나누며
이 결실의 계절에
풍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햇볕 주심을 잊고
작은 별빛을 불평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다처럼 넓혀 주시며
하늘처럼 푸르고 시원하게 하시며
부디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죄악 된 생각은 버리고
선의 근본이신
주님만 모시고 살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이웃과 형제를 격려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 다 잃고도
웁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하늘에 속한 사명자로
온 누리를 품으며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암송대회를 마치고

축복의 통로, 성경 암송



권재현 집사 (12교구)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아~아”

어느날 아침, 둘째 하율이(3세)가 내 뺨은 말이다. 매일 성경 암송을 하는 누나를 지켜보던 하율이가 스스로 외운 것이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예지(7세)의 성경 암송은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일상을 바꾸고 있었다.

성경 암송 당일, 본선 무대여자인지 예지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다행히 그동안 수십번 넘게 외운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모두 매끄럽게 암송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왔고, 무엇보다 최선을 다한 예지를 마음껏 축복했다. 그리고, 아직 외운 성경 말씀의 의미를



다 알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예지가 컸을 때,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기억나고, 인격이 되어, 예지뿐 아니라 예지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의 시간은 성경 암송을 중심으로 우리 가족이 더 하나가 된 축복의 시간이었다. 성경 암송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매일 모일 수 있었고, 또 수백번 암송하며 말씀의 의미를 깊고 깊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글씨 읽는 것조차 힘들었던 예지에게 일일이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노력한 아내, 누나가 성경 외우는 동안 혼자 심심했음 하율이, 어렵고 힘든 성경 암송의 과정을 완수한 예지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성경 말씀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는 “서울교회 성경암송”이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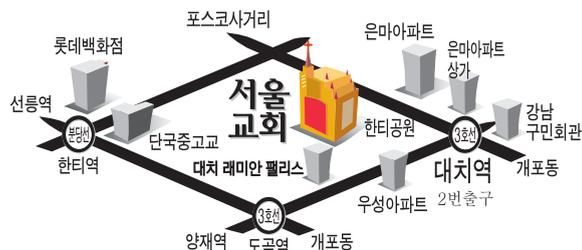
지난 10월 24일(토) 우리교회 비전 2020운동본부(본부장 : 최광성 장로)는 22사단 진중세례식을 거행하였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 예배	오전 9시
	II부 예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I부 예배	오전 11시
	II부 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본당 II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베들레헨찬양대(대장: 이동만 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유태왕 집사의 지휘로 합창곡 “이제야 돌아옵니다 (진선미)”, “영광 (Emily Crocker)”, 그리고 중창(강민석, 안세권, 조재만, 최재호) “세상을 사는 지혜 (이율구)”를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최수환 집사, 피아니스트 박수강 집사가 함께 연주한다.

11월 행사표

- 11.1(주) : 베들레헨 찬양대 특별찬양
- 11.6(금) : 신년 계획을 위한 목회정책 협의회
- 11.15(주) : 1. 추수감사예배 및 성찬식
주일 1-3부 예배
2. 감사찬양예배 - 찬양예배 시 임마누엘찬양대
- 11.22(주) : 교회설립주일 및 장로 임직식
주일 1-3부 예배 및 찬양예배 시
- 11.29(주) : 대림절

등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1.1(주일) 성미의 교회 주일에 배설교한다. 11.2(화)-3(수)백령도 군부대방문 위문한다. 11.5(목) Light mission 선교상 시상식에 참가한다. 7(토) 사랑의 쌀 운동, IUB대학 이사회 개회설교를 각각한다.

■ 이사: 11교구 흥동기 성도 조정옥 권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5단지 506동 502호

■ 금주의 식사 제공 : 강신규 성도 김지숙 권사 강진석 성도 (범사에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생명축제에 초대하기로 작정하였던 전도 대상자(VIP)들을 2015 사명자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2. 11월 6일(금) 모이는 2016년도 목회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우리교회의 내년도 목회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3.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를 통하여 수험생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